지옥에 대하여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까집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안만들었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좀 깊게 해보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기에 영원하신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정말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무도 끔찍한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지옥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자처럼 보이는 것만을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거지 나사로 처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내세와 금세 , 금세와 내세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렇게 많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세상 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렇게 이세상 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 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도, 예,
29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금세도 있고 내세도 있다, 그리고 내세는 영원한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금세와 내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도 동일하게 금세와 내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19.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20.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 본문에 보면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

잔치하며 이 세상에 부러울것 없이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그 거지,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에 비해 너무 비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지로서 그 부자의 대문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먹을 것을 빼앗아 먹는 그런 비참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 만날것을 늘 소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와 같은 삶,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나사로 처럼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잠시후면 썩어질것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에 이 세상의 것에 미련두지 않고 영원한 것

에 미련을 두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우리들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21장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 21장 7절

7.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8.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9.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10.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배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11.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 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 추는구나
12.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13.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러울 것 없이 자기가 누릴것 다 누리고 또 자식에게 그 자기가 가진 것을 유전하는 잡니다.

그 집이 평안함이 있고,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그런 재산들은 너무도 잘 불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잔칫날에 잡기 위해서 키우는 돼지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어느날 마치면 그 삶 뒤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지옥이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17편 보겠습니다.
17편 14절

14.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15.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이 세상의 것으로 낙을 누리고 살아가며 자식에게 갖은 것을 다 물려주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을 마치는 그 후의 삶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세상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과 그 아픔들을 다 기쁨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73편 2절

나는 거의 실족할뻔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뻔 하였으니
3.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4.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5.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6.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7.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예, 이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 정말 자기들이 이 세상의 누릴것 다 누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 삶을 마칠때 그 사람들의 삶은 아주 영원한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히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15.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궤휼을 행하였으리이다

16.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시편 기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죄악과 구별되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많은 고난고 핍박과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실족할뻔 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잘못생각하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을 입으로 내놓아서 그 거룩한 형제자매들에게 많

은 어려움을 줄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결국을 깨닫게 해 주셔서 이제 그 자기의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지를 그리고 얼마나 은혜받은 삶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19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20.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반대로 부자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반대로 이 세상에서 더 비참하게 너무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삶은 때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때도 있답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18.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 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로만족하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찾을수 있을 겁니다.

마치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 비참하게 살았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셨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처를 삼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서 보이는 것은 잠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4:14)

이 세상 이 삶은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다.

바람과 같은 인생이다. 구름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과 같은 인생 구름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만나고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이세상에 살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할 때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 눈물을 흘린 것을 지금 간증하고있습니다.

24.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번 맞았으며
25.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26.여러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볼땐 정말 버려진 사람.

비참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비참하게 된 그런 모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수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16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15.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도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셨다.

그 천국을 준비 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예 이세상에서 부자는 나름대로 이세상에서 누릴것 다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나사로도 동일하게 그 이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건너갔어요.

건너갈 때, 천사가 나사로를 인도 했습니다.

죽음을 건너가서 그 부자는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을 건너간 그곳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유인물 2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3번, 죽음을 건너간 후에 두 사람의 운명.

부자는 불꽃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며 극한 갈증으로 절규하며 한방울의 물이라도 얻기를 구하는 부자의 고통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일

깨우고 있습니다

음부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12.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예수님 께서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놓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그 지옥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 그 지옥은 그 천국에 갈수 있는 그 지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놓친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 사람을볼 때마다 그 눈물 짓고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불꽃가운데 고민 하나이다.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나사로 손 끝에 물 한방울이 어떻게 그 부자를 서늘하게 할수 있습니까

그 물 한방울도 그 부자는 정말 얻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무서우면 그렇게 말할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참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안식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기억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기억하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늘 생각하고 그 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도 죄를 생각할 때 참으로 끔찍한 생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관심을 생각을 다른데로 돌릴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건너가서 영원한 지옥은 그 죄의 생각들을 끝없이 끝없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생각들을 기억들을 다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부자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또한 나사로는 반대로 이제 이 세상에서 받았던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이제 그 기쁨으로 그리고 환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

8.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주님앞에 갈때가 됐을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 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이 그 눈에 서 씻기시매 . 이 세상에서 그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리고 영원한 희락과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ㄴ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있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지를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7.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찌니라
30.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찌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이제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육신의 형제 다섯 명을 기억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다시 보내가지고 그 형제 다섯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갈 것 없다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그 세상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났다고 말할겁니다

그 세상에 있는 그 다섯 형제는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고 또 세상에 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잇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다고 해도 동일하게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그래서 세상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부자와 같은 마음,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하면서 그 자기 육신의 형제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때 그 상대를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잠언 24장 11절에

11.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그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바울은 내가 여러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고 또복음을 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특징

성경에 지옥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마태복음 5장29절에 보면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네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네 다리가 너로 범죄케 하거든 짤라 내버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상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존재하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은 실제로 존재 합니다

2번 꺼지지 않는 불이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는 세세토록 타는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가복음 9장 48-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영영히 타는 불이다 세세토록타는 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슬피우며 이를 가는 곳이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4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은 영원히 형벌 받는 곳이다. 밤낮쉼을 얻지 못하는곳, 세세토록 고난 받는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캄캄한 곳이다

지옥은 캄캄한 곳이다. 유다서 1장 6-7절

6.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지옥은 캄캄한 곳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바닥이 닿지 않는 무적행(?)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참으로 지옥은 끔찍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 높고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그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기를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고 아주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

그것이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일부로 부인하고 핍박하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받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잠자코 있을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세상 아무 소망도 없이 살던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죄가 주님 그 십자가의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수 있습 니까

죽지않고 살아서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길 원합니다

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도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악한 마귀에 속아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잃어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맡고 있는 초등부 학생들 주님 ,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그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구원받을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일을 위해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